

No. 60

2006 SEPTEMBER

(재) 국제노동재단

우편101-0051 도쿄도 지요다구 간다진보초 3-23-2 금명빌딩5F TEL. 03-3288-4188

FAX. 03-3288-4155

URL:<http://www.jilaf.or.jp> E-mail:info@jilaf.or.jp

특집

JILAF가 추진하는 “아동노동 박멸 운동”

아동노동 반대 세계 데이

6월 12일은 국제노동기관(ILO)이 정한 “아동노동 반대 세계 데이”이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아동노동 박멸을 기원하며, 여러가지 이벤트가 개최되고 있다.

ILO가 올해 5월에 제출한 글로벌·리포트 “The End of Child Labour: Within Reach”에 의하면, 2004년의 시점에서 아동노동자(5세~17세)는 약 2억 1,800만명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온세계의 아동 7명중 1명이 아동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6명중 1명이 아동노동을 했던 2000년에 비교하면, 아동노동은 11% (2,800만 명) 감소되었다. 아동노동이 감소한 배경에는, 주로 라틴아메리카 각국에서의 아동노동에 대한 대응 결과가 거론되고 있다. 브라질에서는, 사자구성 조직으로서 “National Forum For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Child Labour (아동노동 방지·박멸을 위한 전국 포럼)”이 시작되어, 새로운 헌법으로 의무교육을 정하고, 취학률을 높였다. 또, 중국의 노동조합도, 아동노동에 관한 “세미나” “캠페인” “계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크게 아동노동 박멸을 위해 공헌하고 있다. 단, 라틴아메리카 이외의 지역에서의 감소는 적은 수치에 머무르고 있어, 여전히 많은 아동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이 보고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ILO는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최악의 형태의 아동노동”은 앞으로 10년 동안에 철폐될 것이라고 하며, 이를 위한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남아시아팀 7명을 초대

JILAF의 초빙사업은, 올 6월 12일의 아동노동 반대 세계 데이에 맞추어 초빙한 남아시아팀이 아동노동에 관한 각종 이벤트에 참가했다. 6월 11일에는, NGO-노동조합 국제협동포럼, 아동노동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이벤트 영화상영회 “우리도 공부하고 싶다 ~빈곤과 싸우는 어린이와 노동자들”을 감상했다. 그 후, “아동노동 반대 세계 데이 워크”에도 참가하여 가두의 사람들에게 “세계의 어린이에게 교육을!” 이라

며 빛속에서 참가자 전원이 큰소리로 호소했다. 그 밖에도 ILO 주일사무소 및 아동 노동 박멸에 힘을 쓰고 있는 노조의 강의를 받고, 세계의 아동노동의 현황 및 이에 대한 대응활동에 대해 학습했다.

JILAF 학교운영 프로젝트

현지지원사업에서는, 아동노동 대책으로서 지금까지 네팔과 인도에서 비정규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도 학교에 가지 못 하는 아이들에게 초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 현지의 노동조합, 내셔널센터를 통해서 네팔에서 9개교 (450명의 학생), 인도에서 1개교 (240명의 학생)를 개교하였다. 네팔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비정규학교를 졸업후 공립학교에 편입하여,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일본에서의 대학 입시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대학에 다니는 아이도 나오기 시작하여, 눈에 보이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하단에 졸업생의 편지를 게재)

노조와 연대

또, 금년도는 NTT노조가 실시하고 있는 “아동노동 박멸 캠페인” (5월 21일:오사카, 6월 4일:요코하마)에도 참가하여 많은 조합원과 시민에게 아동노동의 현황과 JILAF의 대응에 관한 홍보활동을 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 노조 및 국제기관과 연대하여 JILAF로서 아동노동 박멸을 위해 폭넓은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네팔의 채석장에서 일하는 어린이들

▲ “아동노동 반대 세계 데이 워크”에 참가

자신들이 손수 플래카드를 만들어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호소하는 JILAF 남아시아팀

▲진지하게 공부하는 네팔의 학생. “이건 뭐라고 읽지?”

▲선생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손을 드는 인도의 아이들

졸업생으로부터의 소식

~NTUC/JILAF 바크타푸르교 (네팔)~

~JILAF의 지원이 있었으므로 현재의 내가 있다 ~

산토시 시레스타(Santoshi Shrestha)씨

1998년 NTUC/JILAF 바크타푸르교(Bhaktapur)에 입학

1999년 동학교 졸업후, 공립학교 (5년생)에 편입

2005년 파드마콘냐 여자단기대학(Padhama Kanya Women's Junior College)(카트만

두)에 입학

저는 집이 가난하여 일을 해야 했으므로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의 아이들이 학교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학교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한 희망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더부살이로 일하던 집에 NTUC(네팔노동조합회의) 바크타푸르(Bhaktapur)지부의 지부장이 방문하여, JILAF의 지원으로 비정규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저를 공부시켜 보는 것은 어떻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때, 마치 저의 소원을 신이 들어주신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부장의 열의가 전해졌고, 가족은 나의 입학에 찬성해 주었습니다.

저는 기쁘고 활기차게 NTUC/JILAF교에 통학했습니다. 클래스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더니 가족들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만약 JILAF의 지원이 없었다면, 오늘까지 교육을 받을 기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NTUC/JILAF교에서 공립학교로 진학할 때, 교육에 관심이 있는 더부살이처의 주인은 교복에서 학용품에 이르는 모든 경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5학년 때 클래스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얻었을 때도, 주위는 모두 놀라울 정도로 기뻐해주었고, 저는 더욱 더 상급 클래스로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0학년 졸업시험에 합격, 다음해에 SLC(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에도 합격하여, 현재 카트만두의 파드마콘냐 여자단기대학(Padhama Kanya Women's Junior College)에 재적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의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모두가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더욱 더 상급 학교에 진학 후, 취직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하고 싶습니다.

희망

“JILAF초빙사업의 축적을 실감”

오오쿠보 아키코(大久保暁子)

PROFILE

연합 유럽사무소장

1995년 연합입국

1997~99년

ICFTU-APRO로 파견

2005년 8월부터 현직

벨기에 브뤼셀의 연합 유럽사무소에 부임한지 1년, 직무상 유럽 각국 내셔널센터의 대회에 참가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연합과 달리, 4년 혹은 5년에 한번 개최되는 대륙 각국 노조대회는 기간도 길고, 해외의 내빈 수가 100명을 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초빙조직 중에는 도상국의 조직도 많은데, 그들은 내가 일본의 연합 출신이다라는 말을 듣고, “일본에 가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기꺼이 말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JILAF의 인물초빙사업으로 방일한 사람들로, 그들에게는 2주일에 달하는 일본 체재가 각각의 조합 캐리어 속에서도 특필할만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1989년이래 1,900명에 이르는 초빙사업 경험자 중에는 이미 각 조직의 톱이 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선두로 하여, 일본의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 사회보장제도 등을 접할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 JILAF에게는 물론, 글로벌화 추진을 피할 수 없는 국제노동운동 속에서 활동을 추진해야 하는 연합에게도 큰 재산인 것은 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초빙은 통신의 미정비 및 비자 취득 등 고생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제자유노련 “ICFTU”와 국제노련 “WCL” 양조직의 해산과 통합으로, 지금까지 어느 곳에도 가맹하지 않았던 조직이 참가하여 결성된 신국제조직 “ITUC”의 발족을 올해 11월로 앞두고, 새로운 확대도 상정됩니다. 노조의 정치 역학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보다 충실한 프로그램이 실현되어지도록 기대합니다.

노동조합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 No.12

닛산(日産)노련 LIC국

국장 야마구치 아키라(山口明)씨

HP:www.ngu.or.jp

“닛산노련의 국제복지활동”

닛산노련은 1955년 결성 이래, 각종 협력운동 및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1976년에 복지기금(전조합원 거출·매월 100엔)이 창설된 후,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자선 공연, 복지시설에 대한 물품원조, 나아가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발전도상국 사람들에게 “차량”기증을 하는 등, 해외에서도 폭넓게 국제협력활동을 전개하고, 사회공헌활동을 한층 더 충실히 해 왔다.

해외에서는, 장애인의 복지활동에 특화하여 현재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2005년 11월에는, NPO법인 “와타보시”를 통해서 중국·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음악제에 자금을 지원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평소 느낀 점과 생각을 쓴 “시”를 멜로디에 실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콘서트는, 빈곤과 장애라고 하는 2중 핸디를 안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지원 네트워크를 펼칠 목적으로 2년에 1회 개최되고 있다.

야마구치씨는,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자는 생각으로 설립 당초부터 활동을 해 왔다. 노동조합에게 대단한 국제협력은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전조합원의 선의를 조금이라도 해외에 알리고 싶다.” 고 한다.

조합원이 줄어들고, 재정적으로 국제협력활동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닛산노련은 노동조합의 기본인 “서로 돕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이러한 생각이 온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을 기대하며 동시에, 앞으로 닛산노련의 국제복지활동에 많은 기대를 하고 싶다.

(조사 홍보부·가토(加藤))

▲아시아 태평양 와타보시 음악제 2005(베이징)

사회의 무관심에 절망적이었던 장애인들이, 이 콘서트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귀중함”과 “인간의 훌륭함”을 전했다.

파키스탄에서 경제 워크숍 개최
~PWF(Pakistan Workers' Federation)~

6월 27일부터 3일간, 파키스탄의 라호르에서, PWF(Pakistan Workers' Federation)를 대상으로 현지 지원사업이 개최되어, JILAF로부터 이노우에(井上) group leader가 참가했다.

PWF는 작년 9월에, ICFTU에 가맹한 3개의 내셔널센터가 통합하여 설립된 새로운 내셔널센터로, 금년도는 새로운 조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현지로부터의 요청에 응해, JILAF는 지방워크숍(경제·5회)과, 전국워크숍(단체교섭·노사관계를 1회씩)의 개최비용을 지원한다. 이번에는, 이 지방워크숍의 제1회로, 중앙지역의 주요 20개 조합에서 각각 1명의 조합원(여성 5명)이 참가하여, 대학교수에 의한 정부의 경제·금융정책 강의를 비롯하여, 노동조합의 역할 및 민영화 현황에 대한 설명, 가계와 일, 국제기관의 역할 등에 관한 그룹 디스커션과 그 발표 등이 있었다.

워크숍에서는, JILAF가 과거에 구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한 워크숍에 참가한 조합원이 세션을 담당했고, 참가자들도 구 3개 조직으로부터 균등하게 선발된 점 등, 새로운 조직의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중앙 오른쪽이 PWF 초돌리 타리부 나와즈(Chaudhry Talib Nawaz)회장, 이노우에, 콜싯드 아멧드(Khurshid Ahmed)사무국장

JILAF 달력

■활동 보고 (2006년 6월~8월)

●초빙

- 남아시아팀 (6/8~21)
- 아프리카 영어권팀 (6/29~7/12)
- 아시아 노조연수팀 (7/23~29)
- 중동·아프리카 북부팀 (8/31~9/13)

●현지지원

- 네팔 NTUC 학교운영회의
(6/10~18) <카트만두>
- 인도네시아ITF/KSPSI운수세미나·여성세미나
(6/18~24) <자카르타>
- 파키스탄 PWF & 타이ITF워크숍
(6/26~7/3) <라호르, 방콕>
- 몽고 CMTU POSITIVE 지역세미나
(6/30~7/9) <몽고>

- 중국 ACFTU POSITIVE 모니터링
(7/2~7) <北京시, 南京시>
- 필리핀TUCP POSITIVE 세미나
(7/4~14) <세부, 퀘손>
- 인도 INTUC 학교 모니터링
(7/18~25) <마카푸르>
- 베트남 VGCL POSITIVE 코어트레이너 육성세미나
(8/6~13) <하노이, 호치민>
- 타이 UNI조직화세미나/PSI안전위생·단체교섭세미나
(8/6~13) <방콕, 파타야>
- 기타
- 2006 아동노동 박멸 캠페인
(6/4) <요코하마 소고>
- NGO-노동조합 협동포럼 캄보디아 스터디투어
(6/25~7/2) <프놈펜, 썬리앗푸>
- 제1회 국제노동문제연구회
(7/13) <JILAF>
- 제15회 ICFTU-APRO/OTCILS/JILAF상급지도자 양성코스
(7/18~8/3) <싱가폴>
- 제2회 국제노동문제연구회
(7/25) <연합종합연구소>
- 제14회 ILO지역회의
(8/28~9/1) <한국·부산>
- 활동 예정(2006년 9월~)
- 초빙
- 아프리카 프랑스·포르투갈어권팀 (9/21~10/4)
- 중미팀 (10/19~11/1)
- 유럽팀 (11/9~22)
- “직장에서의 에이즈문제”팀 (11/30~12/13)
- 현지지원
- 중국 ACFTU 중소기업조직 강화세미나(9/9~16)
- 몽고 CMTU POSITIVE지역세미나(9/10~17)
- 인도네시아 POSITIVE 코어트레이너 양성 세미나(9/17~22)
- 베트남 VGCL 조직화세미나(9/25~30)

- 필리핀 POSITIVE 모니터링(10/중순)
- 인도 INTUC 학교 모니터링(10/중순)
- 베트남 POSITIVE 지역세미나(10/하순)
- 기타
- 중동·북아프리카지역의 노동운동 국제심포지엄
(9/6) <동경·케이오플라자호텔>
- ICFTU세계대회
(10/31~11/3) <오스트리아·비엔나>
- “직장에서의 에이즈문제팀”국제심포지엄
(12/6) <동경>